『儒林外史』 焦點話者의 변화 연구

趙 洪 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儒林外史』의 초점화자는 수시로 바뀐다. 이러한 서사책략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분석한 결과, 이는 작가가 자신의 주변에서 이상적인 인격체를 찾아 헤매는 여정인 것으로 해석했다. 초점화자는 초점화의 주체로서 사건을 중개하다가 어느 틈에 초점화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초점화자인가보다 왜 초점화자였던 인물이 사라지는가이다. 즉 초점화자였던 인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한 탐색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작가의 화신인 인물 또한 초점화자였다가 초점화의 대상으로 출현하기도 한다. 이를 라깡의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해보았다. 또한 부귀공명을 대하는 태도 역시 라깡의 욕망이론을 이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점화자의 변화에 주목하면 『儒林外史』의 구조에 대한 기존의 학설처럼 산만한 단편 소설의 모음이라는 구조가 아니라 최후에 이상적인 인격체를 제시해주는 완정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儒林外史』 焦點話者의 변화 연구

1. 서론
2. 서사책략으로서의 초점화자의 변화
   1) 초점화자의 변화 양상
   2) 서사책략과 작가의 의도
3. 이상적인 인격 탐색
   1)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2) 이상적인 인격 제시
4. 결론

1. 서론

초점화(焦點化, focalization)는 시점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즉 제라르 쥬네트(Gerard Genette)가 전통적인 의미의 '시점'(point of view, perspective)을, 서술법(mood)과 음성(voice) 곧 작중 상황을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의 두 차원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을 때, 초점화는 서술법 "누가 보는가"의 차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1] 이를 설명할 때 자주 제시되는 아래 예문을 보자.

> 이사벨은 그가 거기에 창백하고 사색에 잠긴 채,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위의 예문에서 작중 상황을 보는 것은 이사벨이나 말하는 이는 3인칭의 다른 서술자이다. 이사벨을 시점이라고 부르면 보는

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953쪽.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구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미케 발(Mieke Bal)은 이 초점화의 주체 즉 초점화자(Focalizor)를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초점화자는 성분들이 보여지는 지점이며, 그 지점은 인물(다시 말하면 파블라의 성분)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다. 인물 내부에 속박된 초점화자를 CF(character-bound Focalizor)라 하고, 파블라의 외부에 위치한 익명의 주체가 초점화자의 기능을 할 경우 외적이고 비인물로 속박된 초점화자 EF(non-character-bound Focalizor)라고 부른다.[2]

중국소설사에서 『儒林外史』는 明代의 四大奇書 중 『金瓶梅』에서 단초가 보였던 단일 작가의 창작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순수한 '개인 창작의 시대'를 꽃피운 작품이다. 이는 '소설 창작의 역할이 이차작자에서 일차작자로 넘어가는 것'으로, 청대에 들어서서 '이미 존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야기를 확대하거나 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하고 글로 표현하는' '작가라는 개념이 더욱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3] 즉 중국소설사에서 『儒林外史』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대적인 의미의 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보면, 『儒林外史』의 수시로 바뀌는 초점화자라는 서사책략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儒林外史』의 초점화자는 CF와 EF가 번갈아 가며 맡고 있으나 CF는 수시로 바뀐다. 한국의 현대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趙世熙 作)과 중국의 현대 소설 『사람아 아, 사람아!(人啊, 人)』(戴厚英 作) 역시 초점화자가 바뀌나 이 두 작품에서는 장이 바뀌면서 초점화자가 바뀐다. 이에 반해 『儒林外史』의 초

2) 미케 발, 한용환 · 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189-190쪽을 요약한 것.

3)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438-439쪽.

점화자는 어떠한 예고나 장치 없이 한 章에서도 수시로 天衣無縫하게 바뀌므로 현대 한국과 중국의 소설보다 어느 면에서는 더 실험정신이 강한 서사기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출발점은 바로 이 '수시로 변하는 초점화자'이다. 이 '수시로 변하는 초점화자'는 분명 『儒林外史』의 작가가 의식적으로 채택한 서사책략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분석은 『儒林外史』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서사책략으로서의 초점화자의 변화

1) 초점화자의 변화 양상

『儒林外史』의 첫 대목 즉 설자(楔子)만을 살펴봐도 이 작품의 초점화자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알 수 있다. 설자 중 초점화자가 바뀌는 대표적인 부분들을 골라보면 아래와 같다.

① 그건 그렇고 원나라 말년에 한 특출한 인물이 태어났다.
② 왕면은 소를 치다 피곤하여 풀밭에 앉아 있었다. 곧 짙은 구름이 밀려들더니 한차례 소낙비가 지나갔다.
③ 진씨가 그를 맞아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이 사람은 성이 적(翟)씨로서, 제기현의 아전이자 매판(買辦)이기도 했다.
④ 적씨는 가마를 안내해서 왕면의 집 뒤로 돌아 나갔다. 그곳에는 여기저기 좁다란 밭둑이 나 있고, 멀리 큰 못이 하나 있었는데 못가에는 온통 느릅나무, 뽕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⑤ 지현이 길을 가는데, 멀리서 물소를 비껴 탄 목동 하나가 고갯마루를 돌아 이쪽 편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적씨가 달려 올라가서 물었다.
⑥ 다음 날 새벽, 왕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꾸리고 아침을 먹었다. 마침 진씨도 찾아왔다.
⑦ 눈 깜짝할 사이에 반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⑧ 어느 날 아침, 왕면이 그곳에 앉아 있는데, 남녀노소가 뒤섞인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⑨ 왕면이 언제 하루라도 관직을 지낸 적이 있던가? 그러므로 이렇게 밝혀두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설자(楔子)에 불과하니, 다음부터가 본문[正文]이다.[4]

①의 초점화자는 파블라 외부에 있는 익명의 인물이므로 EF라 할 수 있다. ②에서는 王冕의 눈을 통해 풍경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초점화자는 CF(王冕)이다. ③을 보면 적씨에 대한 정보가 진씨의 지식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므로 CF(진씨)임을 알 수 있다. ④에서 제시되고 있는 집 뒤의 모습은 적씨의 시각을 통한 것이므로 CF(적씨)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하 예문들의 초점화자는 ⑤CF(지현), ⑥CF(王冕), ⑦EF, ⑧CF(王冕), ⑨EF 등으로 부단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중국 고대소설에서 초점화자가 바뀌는 서사법은 『儒林外史』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다. 王平은 『中國古代小說敍事硏究』에서 중국 고대소설의 초점을 중립형 전지시각, 제일인칭 서사시각, 희극식 서사시각, 편집형 전지 시각, 다중 선택적 전지시각, 선택적 전지시각 6가지로 분류했다. 이중 편집형 전지시각이라는 서사법이 쓰인 작품에서 초점화자의 변화가 먼저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편집형 전지시각이란 송원대의 '說話'의 서술자 즉 說書人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거의 제한 없이 무수히 변하는 전지 시각을 쓴 데서 유래한다. 설서인들은 자신들을 이야기의 밖에 두고 방관자의 신분으로 강설하거나 한 인물의 시각으로 강설하기도 했으며, 또한 인물들을 모방해서 대화를 강설하기도 했고, 인물의 내면에 파고들어 그들의 관념과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갖가지 의견을 강

4) 오경재 지음, 홍상훈 외 옮김, 『儒林外史』, 을유문화사, 2009, 12-30쪽 참조. 이하 『儒林外史』의 본문은 이 번역본에서 인용함.

설하여 인생·역사·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각이 한 데 모여 있는 것이 편집형 전지시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三國演義』·『水滸傳』·『西遊記』·『金甁梅』 등을 들고 있다.[5] 특히 『三國演義』와 『水滸傳』에서 서사 초점이 두 사람 혹은 더 많은 인물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6]

이어서 그는 다중선택적 전지시각에 대해서는 편집형 전지 시각에 비해 인물에 속박된 초점화자 즉 CF(왕평은 '내재각도'라는 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가 대폭 증가된 것이며, 작품 내에서의 비중도 훨씬 커진 것이라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술자가 여전히 전지적인 시각을 쓰나 내재각도가 부단히 변하는 것이다. 내재각도란 주요 인물의 내부시각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부단히 변한다는 것은 시각이 한 인물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儒林外史』를 든다.[7]

그의 분석에 의하면 『儒林外史』에서는 인물들의 등장과 퇴장에 맞춰 초점화자를 바꿈으로써 다중선택적 전지시점이 완성되었는데, 초점화자가 되는 방식도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ㄱ. 인물 내부의 시점으로 풍경 묘사: 제1회, 王冕의 시각으로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그가 장차 화가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낸다.

> 어느 초봄이었다. 그날은 날씨가 건조하였다. 왕면은 소를 치다 피곤하여 풀밭에 앉아 있었다. 곧 짙은 구름이 밀려들더니 한차례 소낙비가 지나갔다. 그 먹구름 주위로 흰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점점 흩어지면서 한 줄기 햇볕이 새어 나오 호수 주위를 온통 붉게

5) 王平, 『中國古代小說敍事硏究』, 河北人民出版社, 2001, 99-100쪽.
6) 『中國古代小說敍事硏究』, 101쪽.
7) 『中國古代小說敍事硏究』, 115쪽.

비추었다. 호수 주변의 산에는 여기저기 푸른 숲과 붉은 꽃들이 알록달록 섞여 있었다. 가지 위 잎사귀들도 모두 물로 씻어낸 듯 초록빛이 더 선명하였다. 호수에는 10여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었는데, 꽃봉오리에서는 맑은 물방울이 똑똑 흘러내려 연잎 위로 구르고 있었다.[8]

ㄴ. 인물 내부의 시점으로 인공적인 건물 묘사: 제22회, 牛玉圃의 시각으로 萬雪齋의 집을 묘사한 것.

고개를 들어보니 중간에 커다란 편액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금색 글씨로 '신사당(愼思堂)'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는 한 줄로 "양회염운사사 염운사 순매 씀(兩淮鹽運使司鹽運使荀玫書)"이라고 적혀 있었다.……안쪽 벽에는 예찬(倪瓚)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다듬지 않은 큰 옥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9]

ㄷ. 다수 인물의 시점으로 한 경물을 묘사한 경우: 제37회, 지형산 등 20여 명의 인물의 시각으로 태백사 내외의 환경, 건축, 편액 등을 묘사한 것.

그들은 태백사를 향해 나아갔다. 수십 계단을 올라 높은 언덕에 이르자 큰 대문이 나타났는데, 대문 왼쪽은 제사에 쓸 희생을 점검하는 곳이었다. 대문을 지나자 큰 마당이 나타났다.……[10]

ㄹ. 인물 내부의 시점으로 다른 인물의 활동 묘사: 제1회, 王冕의 시각으로 다른 세 사람의 대화를 아주 길게 묘사한 것.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멀리서 장정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 저편에서 세 사람이 건너오는데 그들은 모두 수재인 듯 머리에 방건을 쓰고 있었다.……이 자리를 말련한 듯한 그 뚱보는 아래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한차례 마시고 나서, 그 뚱보가 입을 열었다.……[11]

8) 홍상훈 외 옮김, 『儒林外史』, 13-14쪽.
9) 『儒林外史』, 427쪽.
10) 『儒林外史』, 747쪽.

ㅁ. 이미 출현한 인물의 시점으로 다음에 등장할 인물 끌어내기- 제2회, 周進의 시점으로 王擧人과 範進을 끌어낸 것. 왕거인은 周進의 시각에서 출현한 후 周進의 시각에서 퇴장이 묘사되었고, 範進은 周進의 시각에서 출현하나 周進의 위치를 대체하고 周進이 오히려 範進의 시각에서 퇴장한다.[12] 먼저 왕거인의 출현과 퇴장을 살펴보자.

> 주진이 보니 그 사람은 방건을 쓰고 멋들어진 남색 비단 도포를 입고 바닥이 하얀 검은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세 가닥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그 남자는 대략 서른 살 남짓 돼 보였다.……
>
> 다음 날 아침에는 날이 이미 개어 있었다. 王惠(왕거인)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은 다음 , 두 손을 맞잡아 공수 인사를 하고서 배를 타고 떠났다. 땅바닥에 온통 널린 닭 뼈다귀며 오리 날개, 생선 가시, 수박씨 껍질들 때문에 주진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는 아침 내내 그것들을 치워야 했다.[13]

範進의 출현과 周進의 퇴장은 제3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주진이 관아의 대청에 앉아 있자니 동생들이 연이어 들어왔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단아하게 생긴 사람, 노루 머리에 쥐 눈을 한 사람, 의관이 가지런한 사람, 남루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다.
>
> 한참 후 한 동생이 들어오는데 그는 비쩍 마른 몸에, 누렇게 뜬 얼굴에는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르고 다 해진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광동 지방 날씨가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때는 이미 12월 상순이었다. ……주진이 자신의 모양새를 보니 붉은 비단 도포에 황금색 허리띠를 맨 것이 얼마나 휘황찬란하던지! 주진은 명부를 뒤적이고 나서 그 동생에게 물었다.
>
> "자네가 범진(範進)인가?"
>
> "예, 그렇습니다."[14]

---

11) 『儒林外史』, 14쪽.
12) 이상은, 『中國古代小說敍事硏究』, 116-120쪽 참조.
13) 『儒林外史』, 48쪽.
14) 『儒林外史』, 57쪽.

範進의 시각에서 周進이 퇴장하는 장면은 아래와 같다.

> 다음 날 주진이 그곳을 떠나게 되자, 범진은 홀로 30리 밖까지 배웅을 나가 가마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주진이 그를 가까이 불러 말했다.……
>
> 범진은 다시 고개를 조아려 감사를 표하고 몸을 일으켜 바로 섰다. 주진을 태운 가마가 호위를 받으며 떠났다. 범진은 선 채로 깃대에 달린 의장의 그림자가 앞산 모퉁이를 돌 때까지 바라보며 서 있었다.[15]

『儒林外史』의 다중선택적 전지시점이라는 왕평의 인식은 필자의 '수시로 변하는 초점화자'라는 출발점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그러나 아쉽게도 왕평은 위에서 본대로 초점화자의 변화 양상만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즉 왕평은 초점화자의 변화는 감지했으나 그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점화자의 변화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간과한 것으로, 『儒林外史』의 구조와 주제에 대한 분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서사책략과 작가의 의도

미케 발은 위의 저서에서 초점화자의 변화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인물에 속박된 초점화자(CF)는 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로 변하고 이동한다. 그런 경우 갈등의 기원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기 다른 인물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보여준다. 이러한 기법은 모든 인물을 불편부당한 태도로 대한 결과이다. 그런데 인물이 최대의 관심과 공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6]

---

15) 『儒林外史』, 60쪽.

위의 인용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갈등의 기원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각기 다른 인물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인물을 불편부당한 태도로 대한 결과이자 인물이 최대의 관심과 공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 갈등의 기원

『儒林外史』에서 초점화자였던 인물은 초점이 바뀌면 작품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다른 장, 다른 초점화자의 서술을 통해 언급된다. 그런데 이 다른 초점화자에 의한 언급은 앞선 초점화자의 견해와 상반된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다. 제1장에서 危素와 知縣 時仁은 먼저 다른 세 선비들의 언급을 통해 독자에게 제시된다. 이들에 의하면 위소는 황제가 존경해마지 않는 학자라서 곧 벼슬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시지현은 위소의 문하생이다. 이 세 선비들의 언급은 王冕이 초점화자인 상태에서 王冕이 듣는 것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 "위소 선생은 학자이시지 않습니까?
> 수염 난 사내가 말했다.
> "듣자 하니, 예전에 경사를 나설 때 황상께서 친히 성 밖까지 배웅하시면서 손을 잡고 열 걸음도 넘게 걸으셨다 합니다. 위 선생이 재삼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나자 황상께서도 겨우 교자에 올라 돌아가셨답니다. 이런 걸 보면 조만간 그분도 벼슬살이를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곧이어 危素와 時仁은 각각 초점화자가 되어 출현했다가, 王冕이 초점화자가 되면 앞서 세 선비들의 서술과는 상반된 부정적인 인물이 되고 만다. 즉 時知縣은 危素의 세력에 기대

16) 『서사란 무엇인가』, 190쪽.

백성들을 학대하는 관리가 되고 危素는 그런 시지현의 배후가 되는 것이다.

> 지현이 돌아가 버리자, 왕면은 멀리 나간 것이 아닌지라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진씨가 찾아와 그를 책망했다.
> "방금 일은 자네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세. 그분은 한 고을의 큰 어르신인데 어찌 이토록 함부로 군다는 말인가?"
> "……시 지현은 위소의 세력에 기대 이곳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굴며 못하는 짓이 없지요. 제가 왜 이런 사람과 친교를 맺는단 말입니까?……"

제1장에서 보이는 이러한 서술 방식은 『儒林外史』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張靜齋는 초점화자로 출현할 때는 範進의 모친상을 도와주는 의인의 형상이나 湯奉이 초점화자가 되면 바로 湯奉이 '돈을 뜯으러 온 게 몇 번짼지, 정말 꼴도 보기 싫군(屢次來打秋風, 甚是可厭)!'하고 혐오하는 인물일 뿐이다(제4회). 이러한 예는 이들 외에도 무수히 많다. 楊執中, 屢氏 兄弟, 權勿用, 馬靜, 胡縝, 杜少卿 등등 자신이 초점화자였을 때와 타인이 초점화자가 되어 자신은 그 대상이 되었을 때 각각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제시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초점화라는 시각을 각 인물에게 고루 양도함으로써 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즉 갈등의 기원이 각 인물이 자신을 모르는 것이며 자아에 대한 성찰이 그 해결책임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인물에 대한 관심

왜 초점화자가 되었는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왜 초점화자이던 인물이 사라지는가 혹은 초점화자에서 초점화의 대상 인물이 되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초점화자는 초점화자라는 역할이 바뀌면 대부분 사라진다. 초점화자를 맡고 있는 인물들의 신분은 王冕, 範進, 周進, 杜少卿 등과 같은 儒林들을 먼저

들 수 있겠지만, 그 외에 王冕의 이웃 秦老, 周進의 자형이자 行商인 金有餘, 牛浦의 조부 牛老, 蔔老, 婁煥文 등과 같은 평민, 연극배우 鮑文卿, 그리고 婁琫의 하인 宦成과 같은 하층민, 嚴大育의 첩 趙씨부인, 蘧來旬의 처 魯小姐, 沈瓊枝, 기생 聘娘 등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게다가 작품의 주제라 할 만한 서술들은 유림들 보다는 평민들을 초점으로 하여 기술되고 있다. 金有餘의 '사람이 태어나 힘 안들이고 이익을 얻기는 어려운 법이네(人生在世, 難得的是一碗現成飯)(제2회)', 匡太公의 '공명은 결국 자기 몸 밖의 물건일 뿐이고 덕행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功名到底是身外之物, 德行是要緊的)(제17회)', 鮑文卿의 '모름지기 돈이란 제 손으로 피땀 흘려 벌어야 온전한 자기 것인 법(須是骨頭裏掙出來的錢才做得肉)(제27회)'과 같은 언급들은 모두 평민들이 초점화자가 되어 서술하고 있다.

초점화자가 신분 차별 없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작가가 인물들을 불편부당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림보다는 평민들의 시점으로 주제에 가까운 교훈들이 서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가가 초점화자를 자주 바꾼 이유, 즉 발언권을 무차별적으로 양도한 이유가 설명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케발의 아래 설명을 보자.

> 초점화자가 인물과 일치한다면, 그 인물은 다른 인물보다 기법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독자는 인물의 시각과 의지를 갖고 바라보는데, 대체로 그 인물이 제시하는 시각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17]

작가가 초점을 신분과 그 인물의 인격을 초월하여 거의 모든 인물들에게 양도한 것은 독자들에게 그 인물과 동화되어보기를 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인물의 시각으로 작품 속에 들어와 보라는 권유인 셈이다.

---

17) 『서사란 무엇인가』, 189쪽.

작품의 제목 이 『儒林外史』이기 때문에 독자는 작품의 내용이 유림들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제목에 현혹된 것이다. 실제 작품에 출현하는 인물 중 유림에 속하는 인물들은 전체의 삼분의 이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나 인생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대상 보다는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많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분명 '과거시험을 통한 공명 추구에 빠져 있는 유림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라는 기존의 『儒林外史』에 대한 평가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작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초점을 양도하면서 평민들에게도 초점화자가 될 기회가 주어지면서 유림이 아닌 평민들이 초점화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평민들은 비판과 풍자의 대상인 경우보다는 동정과 존경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들이 초점화자였기에 그들이 서술한 교훈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즉 수시로 변하는 초점화자라는 서사책략은 유림들에 대한 비판 강화와 평민들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작가의 의도된 장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초점화자의 변화에 담긴 목적이 '인물이 최대의 관심과 공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작품 전체가 각 인물들에 대한 탐색임을 알 수 있다. 한 인물을 초점화자 삼아 그의 일대기가 아니라 짧은 일화만을 보여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초점화자가 바뀌면 그와 관련된 일화도 바뀐다. 이에 대해 魯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책에는 주된 줄기가 없고 다만 각종 인물을 구사하여, [그 인물들이] 열을 지어 등장하면 그에 따라 사건이 그들의 증장과 함께 벌어졌다가 그들이 퇴장하면 같이 끝난다. 〔따라서〕 장편이라고 하지만 자못 단편과 같은 체제가 되었다.[18]

위의 평가 즉 '주된 줄기가 없고'와 '장편이라고 하지만 자못

18) 魯迅, 조관희 역, 『중국소설사략』, 살림, 1998, 519쪽.

단편과 같은 체제'라는 언급은 魯迅과 그의 『중국소설사략』의 권위에 힘입어 『儒林外史』의 구조에 대한 魯迅 이후 연구자들의 기본적이고 공통된 견해가 되었다.[19] 이러한 평가는 모두 『儒林外史』의 초점화자의 변화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초점화자의 변화라는 작가의 서사책략에 담긴 의도가 인물에 대한 관심임에 주의한다면 『儒林外史』의 구조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리라 생각된다.

3. 이상적인 인격의 탐색

1)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儒林外史』의 첫 대목 즉 설자의 첫 단락을 보면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욕망이론이 떠오른다.

> 세상 사람들은 공명을 보면 자기 목숨도 팽개치고 그것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막상 그걸 손에 넣고 나면 그 맛이란 밀랍을 씹는 것과 같다. 자고이래로 누가 이런 이치를 간파할 수 있었던가![20]

---

19) 『儒林外史』의 구조에 관한 최근 논문은 『儒林外史』의 구조에 관한 주장들을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한다.
① 노신의 영향을 받은 連環 단편식 구조 혹은 連環畵式 구조- 樂蘅軍, 鄭明俐, 夏志淸, H.C. Chang, 林順夫
② 부귀공명을 둘러싼 태도로 일관된 구조-黃秉澤, 陳美林
③ 창조적 구조-吳圣昔
④ 나뭇잎(叶子) 구조-楊義
⑤ 紀傳的 구조-張錦池
이상 喬根, 「『儒林外史』敍事結构新探」, 黃山學院學報, 2008, 6 참조. 이 글의 저자 喬根은 위의 분석을 토대로 『儒林外史』의 구조를 표면적으로는 '紀傳體 구조'이고 심층적으로는 '陰陽共生的인 太極圖式'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20) 홍상훈 외 옮김, 『儒林外史』, 12쪽.

라캉의 욕망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발생과 획득 그리고 실망을 거쳐 다시 욕망의 대상이 바뀌면서 욕망이 발생하는 기제가 끊임없이 가동된다. 즉 '대상을 실재라고 믿고 다가서는 과정이 상상계요, 그 대상을 얻는 순간이 상징계요, 여전히 욕망이 남아 그 다음 대상을 찾아나서는 게 실재계'라는 세 단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그러한 욕망의 기제가 인간의 생존 조건이라는 것이다.[21]위의 인용문에서 공명을 욕망에 대입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공명이라는 욕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저자가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설자 첫 대목에 나오는 외적 초점화자(EF)의 탄식은 욕망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군상을 작품 전체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저자의 선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점화자이던 인물이 초점화자의 대상으로 수시로 변하는 과정은 라깡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라캉은 바라보기만 하는 '나'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나'도 있다는 주체의 객관화 혹은 '타자의식'을 주장한다. 보여짐을 모르는 주체는 대상을 실재로 믿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람은 고착상태에 머물러 상황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소외된 신경증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하며, 이 고착에서 벗어나 대상이 허구임을 깨닫고 다시 또 연기된 대상을 향해가는 것, 대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끊임없이 대상에서 벗어나는 '반복'없이 삶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바라봄은 보여짐에 분열된다는 것을 모르는 독선적인 주체, 타자를 인정치 않는 고립된 주체는 심한 경우 히틀러처럼 역사를 광기로 몰아넣는 다는 것이다.[22]

초점화자에서 초점화의 대상으로 인물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바라보는 '나'에서 보여짐을 당하는 '나'로 인물들의 역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

21) 권택영 엮음,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9, 20쪽.
22) 『욕망이론』, 21쪽.

이며, 인물이 사라지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한 객관화를 통한 평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초점화자, 초점화 대상, 초점화자로 재출현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초점화자로 재출현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물이다.

한편, 초점화자의 대상화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은 杜少卿이다. 왜냐하면 杜少卿은 작가 吳敬梓를 원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杜少卿이 초점화자로 출현하는 경우는 바라보는 '나'일 것이며, 杜少卿이 초점화의 대상인 경우는 보여짐을 당하는 '나'로서 이는 분명 작가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려 보는 평가 과정에 해당될 것이다.

가장 먼저 杜少卿이 대상화 된 것은 제31회에서이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은 왜 작가는 자신의 분신을 전체 56회 중 31회에서야 출현시키는가이다. 이 역시 초점화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뒤늦게야 관심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제31회에 작가의 형인 靑然이 그 원형[23]이라는 杜愼卿은 자신에게 신세를 지려는 포정새에게 杜少卿을 소개시켜준다.

> "조급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게. ……그 백부님의 아들은 스물다섯째 항렬에 내 재종형제가 되네. 이름이 의(儀)고 호가 소경(少卿)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두 살 어리고 역시 수재라네.……그 녀석은 아둔해서 자기 재산이 10만 냥도 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네. 좋은 은과 나쁜 은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주제에 또 전주(錢主) 행세 하기를 좋아하지.……"[24]

두신경의 시각으로 소개되는 杜少卿은 세상물정 모르는 아둔한 인물이다. 그러나 위사(韋四)라는 노인이 초점이 되면 杜少卿

23) 노신, 조관희 역, 『중국소설사략』, 526쪽.
24) 『儒林外史』, 635쪽.

은 '진정한 豪傑'이고[25], 하인들이 초점이 되면 하인들의 약까지 직접 챙겨주는 호인이다.[26]32회의 내용을 보면 杜少卿은 주변에서 동정심에 호소하면 자신의 전답을 팔아가면서까지 오지랖 넓게 선행을 베푸는 인물이다. 그의 하인마저 함부로 전답을 팔지 말라 권하자, 杜少卿은 "내가 누구한테 허투루 돈을 주는 걸 본 적이 있던가? "라며 그 권유마저 뿌리치고 만다.

한림원의 고시독(高侍讀)의 평가는 작가로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평이었을 것이다.

> "……이 소경이란 자는 두씨 집안에서도 가장 한심한 자요! 그 집안은 조상 수십 대 동안 의술로 너리 음덕을 쌓았고 전답도 엄청나게 모았지요. …… 이 아들놈(杜少卿-인용자)은 더욱 가관이어서 무위도식이나 하면서 중이며 도사, 장인, 거지들은 전부 불러다 어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과는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10년도 안 되어 6,7만냥이나 되는 은자를 몽땅 써 버렸지요.…… 그 집안에서 이런 자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자식과 조카들을 가르칠 때……책상마다 '천장현의 두의를 본받지 말라'고 써서 붙여 놓았지요."[27]

36회에 나오는 虞博士와 伊昭의 대화에서 보이는 극도로 상반된 평가는 작가가 자신에게 내린 최종 평가라 할 것이다.

>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그 사람이 본래는 부자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되어 남경으로 도망 와서 거짓말로 사람들 돈이나 뜯어먹고 산다는 걸 남경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행실도 형편없지요!"
>
> "무슨 일로 행실이 나쁘다는 건가?"
>
> "그자는 늘 아내를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비웃지요."
>
> "그게 바로 그 양반의 풍류와 고상함을 보여 주는 것이네. 그걸

25) 「儒林外史」, 637쪽.
26) 「儒林外史」, 646쪽.
27) 「儒林外史」, 694쪽.

속된 사람들이 어찌 알겠나?""28)

위의 대화를 보면 杜少卿에 대한 평가가 초점화자에 따라 극히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동석했던 儲信이 杜少卿의 詩文의 수준에 대해 의심하자 虞育德은 그의 시문에 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두둔한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杜少卿에 대한 평가는 『儒林外史』의 주제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유독 杜少卿에 대한 평가가 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은 인물에 의해서 가장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만 해도 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杜少卿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를 보면 작가 吳敬梓가 보는 '나'와 보임을 당하는 '나'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에 대한 탐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상상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계를 거쳐 실재계로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吳敬梓는 자신에게 철저하고 냉철하며 매우 사상적으로 진보적인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상적인 인격 제시

설자와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제55회가 호응 관계를 이루는 걸 보면 『儒林外史』의 전체 주제가 앞서 杜少卿에게 내려졌던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작가가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인물들은 부귀공명을 초월한, 속인들은 알 수 없는 풍류와 고상함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설자에서 元代의 벼슬에는 관심 없이 초야에 묻혀 살면서 부귀공명을 피했던 王冕을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한 후, 明代를

28) 『儒林外史』, 741-742쪽.

작품의 현재 배경으로 삼아 유림으로부터 凡人, 武人, 女人 등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인격을 물색한 끝에 작가가 설자의 王冕과 대응할 만한 인물로 제시한 것이 제55회에 출현한 네 기인이다. 그 중 먼저 글씨에 능한 계하년(季遐年)의 말을 들어보라.

> "네깟 것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라고 주제넘게 감히 나더러 와서 글씨를 쓰라는 거냐! 난 네놈 돈도 탐나지 않고, 네 권세도 부럽지 않고, 네놈 덕을 볼 생각은 요만큼도 없거늘, 감히 글씨를 쓰라고 나를 불러 대!"[29]

재봉사 형원(荊元)의 말을 보라.

> "남의 부귀영화를 탐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으니, 이만하면 즐거운 삶이 아니겠나?"[30]

이는 王冕과 杜少卿, 吳敬梓가 꿈꾸던 이상이라 할 것이다. 부귀영화, 공명에 전혀 뜻을 두지 않고, 타인의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그 무엇에도 구애 받지 않는 삶을 꿈꾸며 그러한 삶을 영위한 인물들을 작품의 시작과 말미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을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儒林外史』에 고전소설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인 因果應報가 전혀 서술되지 않는다는 점, 王冕을 제외하고는 인물들의 생졸에 걸친 일대기가 없다는 점--사라지는 인물들은 그들의 인격에 대한 탐색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도 인물들의 일생이나 사건보다는 그들의 인격 탐색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29) 『儒林外史』, 1069쪽.
30) 『儒林外史』, 1077쪽.

4. 結論

『儒林外史』의 초점화자의 변화에 주목하면 『儒林外史』에 대한 몇 가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작품을 사건 위주가 아니라 인물 위주로 볼 수 있으므로, 작품을 작가 吳敬梓의 이상형 인격 탐색 여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작품을 유림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로만 보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제목에 속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작품에 출현하는 유림 못지않게 평민과 하층민들도 많았거니와 초점도 균등하게 양도되었으며, 작품의 주제사상은 유림들보다는 오히려 평민과 하층민들의 초점에서 더 많이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유림들이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었다면 평민과 하층민들은 재발견, 재인식의 대상이자 주체였다.

다른 한편, 왜 작품의 절반이 지나서야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작가의 분신 杜少卿이 출현하는가 역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이상적인 인격 탐색 여정이라는 주제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위의 욕망이론으로도 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는 작품의 서사책략에서 보이는 창의성 못지않게 자신을 자신만의 시각 속에 가두어 두지 않은 작가의 선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魯迅의 『儒林外史』에 관한 평 '작품에 주된 줄기가 없고', '장편이라 하나 단편인 듯하다'라는 평 역시 바뀔 수 있다. 즉 이상적인 인격 탐색 과정이라면 작품에 주된 흐름이 뚜렷하며 장편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고 제55회가 그 결말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 서사학, 초점화자, 초점화, 시점, 자크 라깡(Jaques Lacan), 욕망이론, 吳敬梓

■ 참고문헌

오경재 지음, 홍상훈 외 옮김, 『유림외사』, 을유문화사, 2009.
魯迅, 조관희 역, 『중국소설사략』, 살림, 1998.
喬根, 「『儒林外史』叙事結构新探」, 黃山學院學報, 2008, 6.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王平, 『中國古代小說敍事研究』, 河北人民出版社, 2001.
連心達, 「歐美『儒林外史』結構研究評價」, 『明淸小說研究』, 1997, 1.

<中文题要>

『儒林外史』焦点话者变化研究

趙 洪 善

如果注意『儒林外史』焦点话者的变化，那么对于『儒林外史』的几点评价就会不同。首先，可以认为作品不是以事件为主，而是以人物为主，由此可以认为作品是作者吴敬梓探寻理想型人格的旅程。另外，那些把作品看成是对儒林们的批判和讽刺的观点，在笔者看来，是受到了题目的影响。这是因为，据笔者观察，作品中出现的平民和下层人的数量并不比儒林少，而且所占据的份量也均等平分，作品的主题思想与其说是站在儒林们的立场，还不如说是站在平民和下层人的立场叙述得更多。如果说儒林们是批判和讽刺的对象，那么，平民和下层人就是在发现和再认识的对象和主体。

另一方面，可以说是作者的化身， 作品主人公杜少卿为什么在作品内容过了一半以后才出现，这也可以被认为是一个疑点。笔者认为，这也从侧面证明了作品是作者探寻理想型人格旅程的说法，因而也可通过欲望理论进行回答。作者没有把自己禁锢在自身的视角中，可以说这是在作品的叙事策略中所体现的创意性。

此外，鲁迅对于『儒林外史』的评价："作品没有主要情节"， "说是长篇却又像是短篇"等，笔者认为也可以更改。即，如果把作品看成是探寻理想型人格的旅程，那么其主要情节很明显，作为长篇毫不逊色，而第55回即为作品的结尾。

关键词 ： 叙事学, 焦点话者, 焦点化, 视角, 雅可 拉康(Jaques Lacan), 欲望理论, 吴敬梓

논문투고일 : 2011년 11월 15일 / 논문수정일 : 2012년 1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월 25일